

#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62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8월15일 금요일	Issue No.	1762
		Date	Sept. 26, 1969: Fri.

## 一九七〇년 말까지에 비에트남 문제 해결을, 닉슨 대통령이 기자회견

(워싱턴 9월26일 밤, 에이피) 닉슨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비에트남 전쟁은 1970년 말, 또는 71년 중순까지에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두 번이나 발언, 국민에 대해서 평화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일종의 노력지지를 요청하였다.

대통령은 한편에서 "미군의 비에트남 철퇴의 기한을 명백히 하라는 제안은 대통령의 평화의 노력을 방해하고, 역효과를 내고 있다" 라는 의견을 말하였다. 말하자면 미군의 병력사감은 북비에트남에게 미리 "18개월 동안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미군은 엄서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되고, 북비에트남의 고섭에의 약속을 일케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은 취임 후 비에트남 전쟁의 해결에 향해 진보적이라고 평가하고, 모든 외국 군대의 비에트남으로부터의 철퇴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회평제안을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외의 문제에서서는 "정부의 물가고등 대책은 이미 효과를 보기 시작하였다" 라고 말하고, 또 비판이 만흔 헤인워즈 신최고재판사를 다시 지지한 외에, 닉슨 정권의 학교교육에서서의 인종 분리방침을 "중간의 길" 이라고 변호하였다.

## 지하 핵폭발 실험 라주에 결행

(애리조나주 암치도카도 9월25일 밤 에이피) 나라의 내외로부터 항의, 그리고 지진학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원자력위원회는, 아류산 열도의 암치도카도에서 오는 10월2일 지하핵폭발실험을 한다고 발표, 그의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 일본 어업장에 큰 영향

(동경 25일 밤, 공동) 미원자력위원회는 10월3일 오전9시(일본시간), 아류산 열도의 암치도카도에서 지하핵실험을 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 실험에서 일본의 북양어업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동일 거행되는 것은 1.2 메가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60배)의 규모인데,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 이외에 2발, 또 장래 9발의 실험이 동도에서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 실험의 지하핵실험은 탄도탄영격용 스파트란의 핵탄두개발이 목적이라고 하며, 최대 5메가톤 (히로시마 원자폭탄 250배에 상당)의 실험도 예상되고 있다. 세계3대어장의 하나라고 하는 아류산 연도해역은, 일본의 어선 다수가 출어하고 있으며, 암치도카도에서 관탕구축으로 지하핵실험이 실시된다면, 조업이 제한되는 외에, 방사능의 의한 해수, 어획물의 오염도 걱정되고 있다.

(제2면에 계속)



(제 1편으로부터 계속)

### 생선에 악영향

어업관계자가 걱정하고있는것은 핵폭발의 진동으로 생선이 도망간다는것, 64년의 애라카지진 때에는 북양의 생선이 전멸 되었다고한다. 또 방사능이 해수중에 새서 확산한경우, 미량이나 오염이 되면 생선의 체내에는 대량으로 축적 되는것이 확실하며, 핵실험해역에서 잡힌 생선을 살 사람이 없지않나 걱정하고있다. 실험이 장래 몇번이나 계속되는경우에는 방사능이 새 위험성은 중대할것이다. 등도는 거리 65키로, 폭은 단지 5키로의 섬으로, 지하 천수백메터의 깊은 땅속에서 핵실험이 거행되게 되어있으며, 확산안성이 약한 지층으로부터 방사능이 해수에 투출할 위험성은 미국내의 과학자들도 지적하고있다.

### 핵 지하 실험문제로 미상원 공청회를 개최

미 원자력 위원회가 10월2일 아류산군도중의 암치호카도에서 거행하게된 지하핵실험에대해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되고, 국내에서도 각방면으로부터 반대의 소리가 일어나고있는데, 미상원의외 위원회에서는, 이문제에대해서 외교상의 문제를 검토하기를 요구한 애라카지진 마이클.구라벨, 하와이선출 하이람.윙 양국 회상의 제안을들어, 래주 월요일에 공청회를 열게 된것이 홀부라이드 외교 위원장의해서 발표되었다. 이공청회가 10월2일에 예정 되어있는 원자위의 지하실험을 정지시킬만한 압력을 가할수있는가는 의문이나, 홀부라이드위원장이 발표한것을 들은 하와이주상원의장 데이빗.마크럼씨는 25일밤 직시 홀부라이드씨에 라전하고, 공청회개최와동시에 실험정지를 위해 원자위원회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도록 호소하였다.

마크럼주상원의장은 아류산군도에서 일어난 1946년의 스나미만으로도 백명이상의 하와이 주민이 생명을 잃은 기록을 들고, 이번의 지하실험이 스나미를 발생하지않는것은 원자위직속의 과학자까지도 보증하지않는것을 지적하고, 하와이주민다수의 지하실험강행에대한 반대를 강력히 호소하였다.

### 구라파. 한국의 미군 병력, 현상유지 방침

(워싱턴 9월25일발, 에이피) 국방총성속의하면, 닉슨정권은 구라파와 한국의 주류미군병력에 관해서 적어도 71년반까지에는 현상유지를 계속할 의향이다. 현재미주구라파병력은 32만명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군의 중핵으로서 서독에 육군5개사단이 주류, 한국에는 육군2개사단을 위시하여 5만5천명이 주류하고있다. 미국의 경제에있서서의 안전보장체제의 재점토는, 아세아지역을 위시한 동맹제국의 자립방위력의 움직임, 비에트남철병사감동의 경향이 나오고있는이때, 구라파, 한국주류병력의 현상유지정책은 약간 놀라움을 가지고 마지하고있다.

### 미국벼기 구입은 이스라엘측 희망

#### 메이아 수상이 닉슨 대통령과 회담

(워싱턴 9월25일발, 에이피) 밤미중의 골라.메이아.이스라엘수상은 25일 백악관을 방문하였다. 닉슨대통령은 메이아수상을 마지하여 인사중 "중동의 진실한 평화는, 사상방의 평화유지외의 관심을 필요로한다. 중동문제는 극히 복잡하고, 1회나 3회정도의 회담에서 해결 될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 메이아수상은 이에대답하여 "이스라엘의 수상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도래를 말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있다" 라고 인사하였다.

이번의 닉슨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메이아수상은 "스카이.호크 80기등 미국병기의 구매와 미.이스라엘의 경제교류의 진척을 희망하고있다"고전해지는데, 작년 12월, 존슨대통령 시대에 2억불로 이스라엘에 매각된 횡출전추동격기 50기는 이미 인도가 되고있으며, 또 스카이 호크 100기도 예약되고있다.

(제 3편에 계속)



(제 2편으로부터 계속)

또 이스라엘은 시콜스키항공 회사와도 3억3천7백만불의 예산으로 레리플러 135기의 분문을 교섭 중이라고한다. 그러나 닉슨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애랍제국의 관계가 더 악화되기를 미할용의이며 미당국은 이번의 이스라엘에의 무기매각에대해서 조외하지않는 모양이다.

### 一九七二年 오기나와 반환에 일.미 합의 확신

(9월25일.호노룰루) 오기나와.북방영토의 반환교섭, 국련총회에서 연설중, 약3주간에걸치는 미국.소련방문의 일정을 마친 일본의 아이지외상은 25일오후에 호랑에 가향하였다. 아이지외상은 공랑에서 기자단과 회견 "오기나와의 72년 반환에대해서 미.일 사상방의 합의는 완전히 성립할수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교섭의 성과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11일의 사.닉슨회담후의 공동성명에서도 애매한 표현이 될것도 예상되고있는 "백을 백" 조건에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않았다 회견의 주내용은 다음과같다.

1. 오기나와반환에대해서는 11월19일부터의 사.닉슨회담에서 결론을 낼것으로 결정되었다. 이것이 나의 교섭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1. 오기나와반환과 비에트남전쟁의 관계에대해서는, 반환시에 전쟁이 종결되어있는것이 희망인데, 그러치않을것도 생각되며, 그것을 어디케 조정해나가는것이 문제가될것이다.

1. 일.미의 대격전에서 배는 오기나와를 회담으로 반환한다는것은, 세계역사상 예가없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사실을 인식한다면, 일.미의 신시대는 명백히 열려간다고 생각하고, 또 일본으로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열리게 될것이다. 해산문제에대해서 말하면, 그대에 주권자의 의견을듯고, 주권자의 절대적찬성 위에서, 일본의 정치를 안정시키는데 절효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 중국대표권 문제

1. 국련의 중국대표권문제에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방침을 취할것이다. 나로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대해서 더 융통성이있는 태도를 접하는것을 희망한다. 국련에서의 연설에서 그침에 추상적으로 말하였는데, 단 잡지사에서의 기고문에서는 더 확실하게 말하였다.

1. 일본은 국련의 안보상임리사국에 참가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비핵3원칙을갖는 평화국가로서 20년이상에걸쳐서 특별한 입장을 지켜왔고, 그외의 면에서 근대국가로서 만든 자리를 차지하여왔다. 국련도 4분지세기이상의 역사를 가진 현재, 더 앞으로 전진하여야한다. 아직 적격조항등을 가지고있다는것은 모순이다.

### 북비에트남 대통령에 탄부대통령이 승격

(모스크바 9월24일발, 에이피) 하노이로부터의 라스송신의 보도에의하면, 북비에트남국회는 고.호.치.민 북비에트남대통령의 후임으로서 돈.독.탄부대통령의 대통령승격을 승인하였다. 북비에트남헌법에의해서 돈.독.탄부대통령승격은 예기 되어있던것이다. 그러나 북비에트남에 있어서의 진실한 실력자인 비에트남노동당중앙위의장의 후임발표는 아직 없다. 돈.독.탄신대통령은 과거 60년간에걸친 혁명의 주사로서, 45-54년의 인도차인전쟁에서는 고.호.치.민대통령과 같이 비에트남독립동맹군을 꾸리고 싸웠다. 그러나 과거수년간 건강이 조치안혀 부대통령직도 명목상의 것이었다. 신부대통령은 ...이다.

### 공화당선거 스캇트 씨

(워싱턴 9월24일발, 에이피) 24일 거행된 공화당선거위원회에서 코더.스톤의 원의 후임으로서 유.스캇트 공화당원내부총무(펜실바니아주)가 신총무에 선출되었다.

(제 4편에 계속)

(제3면으로부터 계속)

대항우보의 신진.하워드.베이커의 원은 24대 19의 투표수로 스캇부총무에 졌다. 부총무의 선출은 오우에 들어가었는데, 베이커의 원외에 쿠리웁, 퍼시시, 피아슨, 밀러의 4의 원이 나스코있다.

### 모택동주석의 사진을 발표

(동경밤) 24일 중국통신은 12일신 회사가 발표한 모택동중공주석과 린.피아오부주석의 사진을 배신하였다. 촬영장소와 필치는 명백치안운데, 그와같은 사진이 작년의 메이.데이 당일의것으로 전에 발표되어있다. 중국통신이 지금 이것을 배신한것은 일부의 모주석의 중병설을 부정하는 의도에서 나온것으로 보인다.

### 차익불의 배상요구

#### 인종확대를 이유로 흑인단체가

(오노두루밤) 노예시대부터 오늘날까지에 350년동안 백인부터 확대된 대상으로서 흑인은 60억 불의 배상금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것으로, 그의 요구를 28일부터 당지에서 열리는 전미은행업자 대회에 제출하기 위해 오노두루에는 흑인지도자가있다. 흑인해방운동의 유력한 단체의 하나인 인류평동회의 주사의 모이.에니스시가 그사람으로, 25일 오노두루 공항에 도착한 동시에는 "미국 은행업의 전자산은 5천억불이 넘는다. 그중의 대부분은 흑인을 사산 임금으로 써먹고, 그들을 확대하여 모은 돈이다. 그중에서 60억불을 요구하는것은 적은 금액이다" 라고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나는 작년 6월 시카고에서 열린 은행업자농촌협의회에 출석하여, 이 요구배상문제를 일요일에 여기서 열리는 대회에서 취급하여줄것의 약속을 얻었다. 나는 이번대회에 출석해서 배상에대한 구체적인 처지를 요구할것이다. 만일 대회가 이문제들 의제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단단 적당한 방법으로, 은행가들 자신들에대한 수단을 강구할 작정이다" 라고 말하였다.

### 레레비존의 폭력장면이 사회에 악영향

(워싱턴 9월 26일밤, 공동) 레레비존의 폭력장면은 미국사회의 폭력적경향을 조장하고있다. 1년이상에 걸쳐서, 이 문제의 조사를 하여온 미국의 유시자들도 작성된 조사 위원회가 24일에 내린 결론이다. 미국의 3대레레비존방송회사는, 개선의 노력을 하고있다고 반론하고있는데, 조사결과로는 미국의 레레비 연국의 8팀까지는 화면에 폭력이 등장하고있고, 폭력의 장면이업는 서부극은 업다는것을 표시하고있다. 애매들은 레레비의 이야기를 진실로듯고, 결론 애매들은 거기로 부러 배운다. 특히 범죄를 잘지킴은 저소독중의 청소년에 강하다.

### 길부지사가 번스지사를 비판

번스내라이 비난을 받은것은 지사자신이 다변것이 아니고, 지사를 사코도는 사람들때문이라고 돌.길부지사는 보고있다. 동시가 신문기자에 말한바에의하면, 항해가 길게 되면 배선체에 조개 등이 부착하여 배의 속도가 늦어지는것과 마찬가지로 번스지사의 내라도 이위같다는것이다. 존.번스지사의 대항자로서 내년의 지사전에 출마하는것에대해서는 아직 공식으로 결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 나의 심정은 부분적으로 배지라고 말할수있다고 동시에는 말하였다.

### 김치수선생 입원 치료중

동지 회재무점서기이신 김창수선생의 건강이 조치가안어, 의사를 심방코 신체검사를한결과,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의사의 충고를듣고, 시내 세인트.루이스병원에 이주초에 입원치료중이라고한다. 김선생의 조속한 회복을 일관치지는 기도드리고있다고한다.

